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노아의 자손들**

[창세기 10:1-4]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아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남이라.

본장은 세계 민족들의 기원에 대한 개요이다. 노아의 세 아들들 중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아완, 두발, 메섹, 디라스이었다. 고멜은 키페리아인의 조상이며 지금의 터키 북부에 거주했고 후에는 지금의 불가리아로 이주하였다. 마곡은 스구디아인의 조상이며 흑해 동쪽에 거주했고, 마대는 메데인의 조상이며 카스피 해 남부 즉 지금의 이란에 거주했다. 아완은 이오니아인의 조상이며 발칸 반도 남부 즉 지금의 그리스에 거주했고, 두발은 이베르인의 조상이며 지금의 터키 동부에 거주하였다. 메섹은 갑바도기아인의 조상이며 흑해 남부에 거주했고 러시아인이 여기서 나왔고, 디라스는 아마 드라키아인의 조상이며 소아시아 서북부에 거주하였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이었는데, 아스그나스는 소아시아 북부,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에 거주했으며 그곳의 호수와 항구는 아스카니에스라고 불리었고, 리밧도 같은 지역에 거주했고, 도갈마는 소아시아 중앙의 브루기아과 갈라디아 지역이나 아르메니아 지역에 거주하였던 것 같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깃딤, 도다남이었는데, 엘리사는 그리스 지역에 거주했던 것 같고, 달시스(다시스)는 이태리 서쪽이나 소아시아 동남부에 거주했던 것 같고, 깃딤은 구브로 섬(키프로스 섬)에, 그리고 도다남은 그리스 동북부에 거주했던 것 같다.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방언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5절까지를 요약하면, 야벳 자손들은 처음에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북부에 거주했고, 후에 북쪽과 서쪽으로 즉 유럽으로 퍼져 나갔다. ‘바닷가의 땅’이라는 말은 지중해 연안과 그 섬들을 가리킨다.

[6-7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삼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었는데, 구스는 이디오피아와, 아라비아 서부에 거주하였고, 미스라임은 지금의 이집트에 거주했고, 붓은 아프리카 북쪽 즉 지금의 리비아에 거주했던 것 같다. 거기에는 붓이라는 강이 있었다. 가나안은 팔레스틴 곧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월라, 삽다, 라아마, 삼드가 있었는데, 스바(세바)는 이디오피아의 홍해 가까이에 거주하였고, 하월라는 이디오피아 동북부에 거주했던 것 같고, 삽다는 아라비아 남부에, 라아마는 아라비아 남부와 서부에, 삼드가는 아라비아 남부에 거주하였던 것 같고, 라아마의 아들 스바(세바)는 아라비아 남부에, 드단은 아라비아 서부에 거주하였던 것 같다.

[8-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었다. ‘영걸’이라는 원어(킵보르)는 ‘용사’라는 뜻이다. 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원어(킵보르 차이드)는 ‘사냥하는 용사’라는 뜻이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그의 탁월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겨루듯이 자기를 높이는 그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 같다. ‘니므롯’이라는 원어는 ‘우리는 반역하리라’는 뜻이다. 니므롯은 단지 짐승 사냥꾼이 아니고 그 이름처럼 사람들과 나라들을 사냥하는 정복자이었고 고대에 나타난 강력한 권력자이었던 것 같다.

[10-12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이는 큰 성이라)을 건축하였으며.

니므롯은 바벨, 에렉, 악갓, 갈레,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레센 등의 성을 건축하였다. 바벨은 지금의 이라크의 알 힐라 지역이며, 에렉은 바벨에서 동남쪽

200km 지역이며, 약값은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이다. 또 레센은 큰 성이라고 증거되었다. 앗수르와 바벨론의 뿌리가 되는 시날 땅의 여러 성들은 본래 셈족에 의해서가 아니고 함족에 의해서 건립되었다. '그의 나라[왕국](바블라크토)라는 표현은 니르트의 나라가 옛 바벨론 제국이라고 불릴 만했음을 보인다. 그 제국의 특징은 본문과 다음 장 창세기 11장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힘과 교만이었던 것 같다. 또 힘과 교만의 사회는 폭력과 악과 압제의 사회가 된다. 그것은 사랑과 겸손, 선과 배려와 희생과 구제 같은 덕을 가진 사회와는 다르다. 교만과 힘의 사회는 부패하여 결국 멸망하고 만다. 그들은 높은 탑을 쌓으며 단합을 추구하였지만, 언어의 혼잡으로 결국 그 꿈은 실패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13-14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십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기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미스라임의 아들은 루딤, 아나뫼,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십, 기슬루힘, 갑도림이었는데, 그들은 주로 아프리카 북부에 거주하였고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 중에 기슬루힘의 자손은 팔레스틴의 서남부에 거주하여 블레셋 사람이 되었다.

[15-20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헛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이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ᵇ)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던라.

가나안의 아들들은 열 한 개의 종족들을 이루었다. 앞장의 노아의 예언에서와 본장의 고대 민족들의 이름들에서, 가나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창세기가 모세의 글임을 증거한다. 본문은 가나안 지경이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이었음을 증거한다. 가나안에 있는 종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다. 또 19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언급한 것은 본 기록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의 상황을 나타낸다. 모세는 이런 성들을 입으로 전해오는 말로나 기록물들을 통해 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알았을 것이다. 또 그는 가나안 족속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우상숭배나 음행으로 심히 부패하여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을 예견했을 것이다.

요약해보면,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의 북부와 북동부, 즉 오늘날 리비아, 이집트, 이디오피아 등에 거주했고 또 일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땅에도 거주했다. 그들은 주로 아프리카 대륙에 퍼져 살았고 아프리카인들이 되었다고 보인다.

[21-30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아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욱단이며 욱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렛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욱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던라.

아벳의 동생(원문 액센트, KJV, NIV)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었다. 에벨 자손은 히브리인을 가리킨다고 본다. 창세기 14:13은 최초로 아브라함을 '히브리(이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벨(에베르)의 자손'이라는 뜻일 것이다. 또 히브리어 에베르는 '건너편의 땅'이라는 뜻이므로 그 말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온 아브라함에게 적합했다(창 11:31; 12:5).

셈의 아들은 엘람, 앗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었다. 엘람은 엘람인 즉 파사인의 조상이며 페르시아만 북서쪽, 지금의 이란 지역에 거주했다. 앗수르는 앗수르인의 조상이며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거주했고, 아르박삿은 아마 갈대아인의 조상이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거주했던 것 같다. 룻은 리디아인의 조상이며 소아시아 서남부에 거주했고, 아람은 아람인의 조상이며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거주했다. 이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었다. 우스는 에돔 북쪽에 거주했고, 훌은 아르메니아 지역에 거주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고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은 다음 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의 언어들이 혼잡되어 그들이 각 종족과 각 언어대로 온 땅에 흩어진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것은 고대에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벨렉의 아우 욱단은 아라비아 남부의 원주민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열 세 명의 아들은 아라비아 중남부의 종족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들의 거주지는 오늘날 사우디 아라비아의 남부와 예멘 지역이다.

[31-32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世系)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요약해보면, 셈의 자손들은 팔레스틴 북쪽과 메소포타미아 동쪽, 그리고 팔레스틴 남쪽의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동쪽 아시아로 퍼져 나갔을 것이다. 동양 민족들은 셈족에 속할 것이다.

본장은 세계 민족들의 기원에 대한 개요이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인류의 삼대 인종을 형성하였다. 즉 야벳의 자손은 유럽에 거주하는 백인종을,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흑인종을, 셈의 자손은 아시아에 거주하는 황인종을 형성했다고 보인다. 노아의 예언대로, 야벳의 자손들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번창했고, 함의 자손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고, 셈의 자손들은 종교적 복을 얻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셈의 자손으로 오셨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경은 인류 초기의 중요한 역사를 담은 책이다. 성경의 내용이 역사가 아니고 신화라면, 본장과 같은 부분들은 전혀 무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성격을 깨닫고 본장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진지하게 받고 믿자.

둘째로, 우리는 함의 자손의 번창과 몰락을 보자. 함의 자손 니므롯은 고대에 강력한 통치자이었고 그의 왕국은 매우 광대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였다. 그 이유는 교만과 폭력과 부도덕 때문이었다.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와 독재자의 출현이 예상된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멸망할 것이다(살후 2:3-8). 우리는 이 멸망할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자.

셋째로, 인류는 모두 아담의 자손이며 또한 노아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한 가족같이 생각하고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인류는 복을 받을 자들과 멸망할 자들로 나뉠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창조자와 섭리자 하나님을 모르고 구주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던질 자들이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실천하다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요 3:36, 벧후 3:8-13, 계 21:1-8). 여러분은 그 둘 중 어느 쪽인가?

**주일오후설교**

**합당한 제물**

[레위기 22: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聖物)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회거룩한 이틈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레위기 7:20에서도,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끊어질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 ‘끊어진다’는 말은 사형이나 제명 혹은 출교를 가리킨다고 본다.

[4-9절]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 . . .

성물에 가까이할 수 없는 부정한 경우는, 나병이나 유출병이 있든지 시체로 부정케 되었든지 설정(泄精) 즉 정액을 배출하였든지 혹은 사람을 부정케 하는 벌레에 접촉된 것 등이다. 나병이나 유출병은 다 나은 후에야 성물을 먹을 수 있고, 시체로 부정케 되었거나 정액을 배출하였거나 부정한 벌레에 접촉된 경우는 저녁까지 부정하므로 해진 후에 몸을 물로 씻고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 또 제사장들은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두려움으로 온전히 지켜야 했다.

[10-13절] 외국인제사장이 아닌 자는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군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 . . .

요약하면, 제사장이 아닌 자나 객이나 품군은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었으나 돈으로 산 종이나 집에서 출생한 종들은 먹을 수 있었다.

[14-16절] 사람이 부지중(부지중)으로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 . .

하나님께서서는 또 위의 범을 어긴 자의 벌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람이 부지(不知)중 즉 실수로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고, 만일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였다.

[17-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자원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 . . .

하나님께서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 것을 명하셨다. 18절에 “서원제나 자원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이라는 구절은 뜻이 분명치 않아 보인다

다. 이 구절은 직역하면, “그가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릴 때, 그들이 여호와께 번제로 예물을 드릴 때”이다. 이 구절의 뜻은 “그들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인 것 같다. 율법에 의하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암컷이나 수컷을 화목제로 드리고(레 3장),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다(레 1장).

**[21-22절]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 . .**

하나님께서서는 또 서원제나 자원제의 화목제물은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명하셨다. 예를 들어,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즉 몸의 한 부분이 절단된 것, 종기 있는 것, 괴혈병 있는 것(옴 혹은 습진 있는 것), 비루먹은 것(붉은 곰팡이 병 혹은 백선) 등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명하셨다.

**[23-25절]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예물(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열납되지 못하리라. . .**

하나님께서서는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자원제물로는 써도 되지만,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열납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불알이 상했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고 이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고 명하셨고, 이런 것은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이므로 그들을 위해 열납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26-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 . .**

하나님께서서는 또 부수적으로 명령하기를, 갓 태어난 새끼가 적어도 7일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고 하였고 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짐승도 아마 모성에 같은 본능이 있기 때문이며 또 짐승에게 너무 잔인하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출애굽기 22: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레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29-33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열납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엔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聖號)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니 되려고 너희를 애급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사람의 감사의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화목제물은 감사한 마음이 식기 전에 다 먹도록 하신 것일 것이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아가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단지 부정한 자는 예외이었다. 오늘 신약 성도도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거룩한 예배당에 드나들고 성경책을 읽고 해석하고 들을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범죄함으로 부정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그 분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반복해 교훈한다. 사도 바울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교훈하였고(롬 6:19), 또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교훈하였다(벧전 1:14-15). 우리는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흠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들, 즉 찬양도, 기도도, 설교를 전함과 들음도,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예물이 되게 해야 한다.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혹은 진실한 심령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다(요 4:24). 시편 96:8-9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른 예배 태도이다. 선지자 말라기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지적하며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고 말하였다(말 1:7-8).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흠 없는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자.

**[책안내]** ● 김효성, 열왕기 강해. 제2판. 217쪽. 2,000원.  
● 김효성, 역대기 강해. 제2판. 256쪽. 2,500원.